

News

오늘 한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인플레 우려에 인상 전망도 나와

매일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4일 오전 9시 기준 통화정책방향 회의 열고 기준금리 결정 예정… 코로나19 상황과 3차례 연속 인상에 대한 부담 고려해 일단 현 수준 동결 관측 우세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은 이미 많이 오른 시장금리를 자극하고 대출 이자 인상으로 이어져 자영업자 부담 가중 가능성… 다만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상 가능성도 제기

20년째 5000만원까지만 보호… 당국 예보한도 상향 검토 착수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예금보험요율과 예금보험한도, 적용 대상 등에 대해 대대적 검토 착수… 예보, 금융위와 논의해 2023년 8월까지 개선 대책 내놓기로…
업계에서는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험 한도르르 높리고 업계별 차등적용하는 방안 거론돼… 금융업권 간 경쟁구도 영향으로 다각도에서 검토 필요

'디지털' 주목한 한화투자증권, 토스뱅크 지분 확대로 시너지 꾀할까

아이뉴스24

한화투자증권, 토스뱅크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600만 주 취득… 보통주 450만주와 보통주 전환권이 부여된 전환주 150만주
이로 인해 지분율은 기존 8.86%에서 10.0%로 확대… 디지털 관련 사업 시너지와 투자수익 모두 잡으려는 전략

은행들은 부동산 정리 중… 우리 5곳·하나 2곳·농협 1곳 또 매각

조선비즈

시중은행들, 폐쇄 점포와 출장소 등 유휴 부동산 공개 매각에 나서… 우리은행, 지점 및 출장소 5곳의 부동산을 공매 시장에 내놓아…
점포 통폐합 추세 영향이 커… 지역 내 거점 지점을 두는 방식으로 효율화 모색 중… 공실로 남은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 목적

손보사 '배타적사용권' 놓고 치열한 경쟁

e대한경제

손보사들, 업황 악화에 대한 타개책으로 특허권인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열 올려… 올해 배타적사용권 획득한 곳은 KB손보, 현대해상, 흥국화재, MG손해보험 4곳
사용권 부여 기간동안 다른 보험사들은 유사 상품 판매 불가… 올해가 IFRS17 시행 전 마지막 해인 만큼 드라이브 걸어 최대한 수익 내기 위함

호실적에도 경영 외적 요인으로 교체된 CEO 속출

한국보험신문

동양생명, 임시주총 열어 저우궈단 전 타이탕보험그룹 부회장 새로 선임… 흥국생명과 화재도 연임대신 새로운 인물로 교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보험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맞춤형 CEO 선호하는 경향… 다만 실적 무관하게 오너리스크 등 보험경영 외적 요인으로 인한 교체 사례 증가되어 우려 가중

“스마트개미 잡아라”…증권사 잇달아 CFD 수수료 인하 경쟁

아시아투데이

현재까지 CFD 시장에 뛰어든 증권사는 총 12개사… 레버리지 수익 내려는 투자자 증가에 다양한 이벤트 마련에 분주
전문투자자 잡기 위함… CFD 서비스를 통해 전문투자자 유지하고, 큰 돈 만지는 개인 고객 확보 가능… 다만 반대매매를 통한 변동성 확대에 주의 필요

서학개미 열풍에… 대외금융자산 2조1610억달러 '역대 최대'

머니S

한국은행 발표 2021년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대외금융자산은 2조 1,61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 작년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 급증 결과
대외금융부채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늘면서 총 1조 5,231억원 집계… 단기외채비율 35.9%, 단기외채비중은 26.4%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